

고 양 창 룡 공 공 주 택 지 구
전 락 환 경 영 향 평 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020.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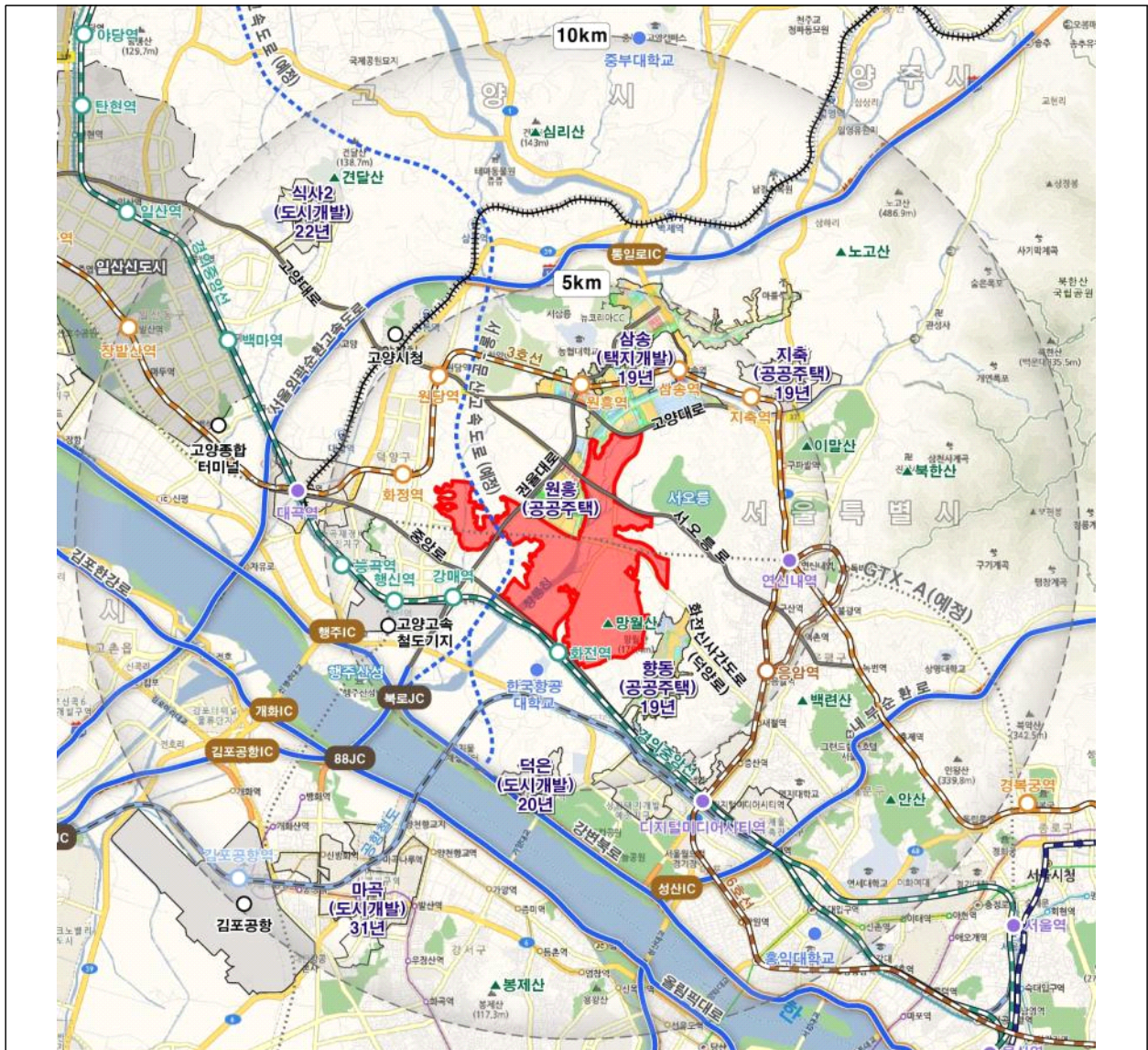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 계획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향동동, 화전동, 도내동, 행신동, 화정동, 성사동 일원
- 계획면적 : 8,126,948㎡(개발제한구역 7,936,443㎡ 포함)
- 계획인구 및 세대 : 91,984인(38,327호)
- 사업기간 : 2019년 ~ 2029년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2. 위치도



3. 주민 등 의견수렴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제15조(설명회의 개최),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3.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가. 공고일자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485호(2019년 10월 24일)
- 일간신문 : 경향신문(2019년 10월 24일)
- 지역신문 : 경기일보(2019년 10월 24일)

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9년 10월 24일 ~ 2019년 11월 22일(22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고양시청 도시계획과, 창릉동·삼송동·흥도동·화정1동·화정2동·행신1동·행신2동·행신3동·화전동·대덕동 행정복지센터

다.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19년 10월 24일 ~ 2019년 11월 29일(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주민의견수렴 게시판에 주민의견 등록

라.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

마. 공람 결과

- 제출된 주민의견 제출서 : 총 176건(서면제출 : 138명, EIASS : 38명)
- 공청회 개최 여부

구 분	주민의견서 제출	공청회 요구
전체	176명	162명
eiass	38명	37명
창릉동·삼송동·흥도동·화정1동·화정2동·행신1동·행신2동·행신3동·화전동·행정복지센터	138명	125명
(공청회의 개최 법적요건)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6조 1.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 수의 50%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485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24.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향동동, 화전동, 도내동, 행신동, 화정동, 성사동 일원
- 규 모 : 8,126,948㎡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9년 10월 24일(목) ~ 2019년 11월 22일(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고양시 도시계획과, 창릉동·삼송동·흥도동·화정1동·화정2동·행신1동·행신2동·행신3동·화전동·대덕동 행정복지센터
-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장소에 비치)

3. 설명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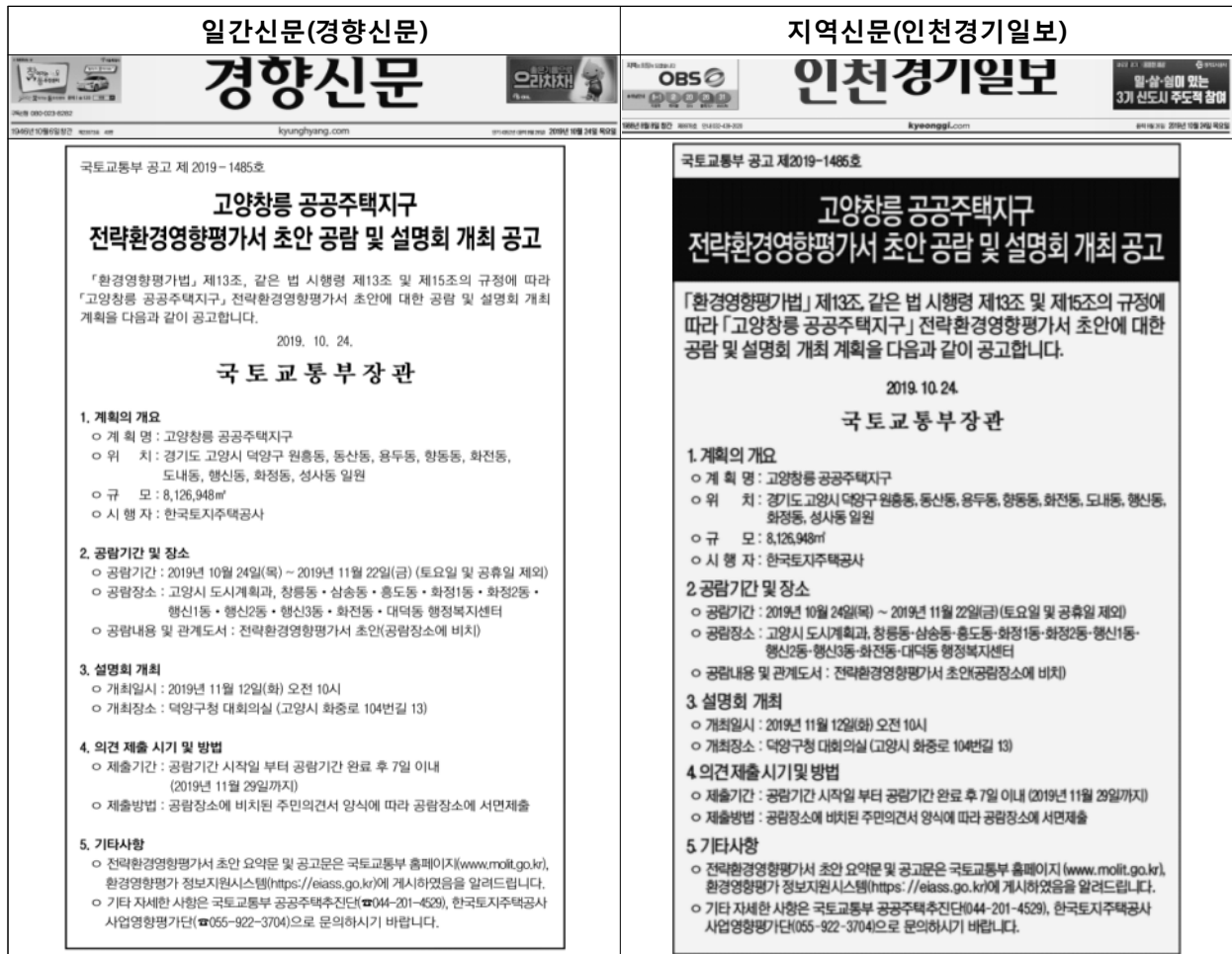
- 개최일시 : 2019년 11월 12일(화) 오전 10시
- 개최장소 : 덕양구청 대회의실 (고양시 화중로 104번길 13)

4.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람기간 시작일 부터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2019년 11월 29일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5. 기타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044-201-4529),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37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2) 신문광고



(그림 3)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게재

(그림 4)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 게재

3.2 설명회

가. 설명회 개최장소 및 일시

- 개최일시 : 2019년 11월 12일(화), 오전 10시
- 개최장소 : 덕양구청 대회의실(고양시 화중로 104번길 13)

다. 설명회 개최 결과

- 참석인원 : 약 300명(참석자명단 기준 50명)



(그림 5) 설명회 개최 사진

3.3 공청회

가. 공고일자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48호(2019년 12월 03일)
- 일간신문 : 한겨레(2019년 12월 03일)
- 지역신문 : 기호일보(2019년 12월 03일)

나.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 2019년 12월 19일(목) 오후 3시
- 개최장소 : 덕양구청 대회의실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3)

다. 개최 결과

- 참석인원 : 약 254명(정상개최)



(그림 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게재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48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03.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향동동, 화전동, 도내동, 행신동, 화정동, 성사동 일원
- 규 모 : 8,126,948㎡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년 12월 19일(목) 오후 3:00
- 장 소 : 덕양구청 대회의실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3)

3. 의견진술자 추천

-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2019년 12월 12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fax 044-201-5650, 전자메일 nkrrs012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29),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37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2호의2 서식 첨부(홈페이지 게재)



(그림 10) 공청회 전경

3.4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

가. 주민공람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일산 주민 이*근 외 21명	○ 발표한 창릉지역 813만㎡ 중 790만㎡(97.7%)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는 서울과 고양시 사이에 최소한으로 남아있는 녹색지대이며, 미세먼지 억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역임 - 창릉지구 GB 등급별 위치 및 비율은 1등급 창릉천 4.7%, 2등급 군부대, 봉재산 31.4%, 3~5등급은 전·답 지역 등으로 각 31.74%, 30.3%, 1.8%이며, GB 외 지역(취락지역) 2.3%가 있음	○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원·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창릉천 수계와 사업부지 외부 산림지역을 연결하는 녹지축 조성 등 친환경적인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음	-
	○ 지난 10여년간 그린벨트해제권을 이용하여 고양시의 그린벨트를 택지개발 한 결과, 고양시는 미세먼지 문제와 쓰레기 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하지 않음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켜 아래사항이 반영, 평가되어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백석환경에너지시설에서 59,571톤은 소각되고, 시외 반출량 46,862톤은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되어 매립되는 상황임	○ 소각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은 고양시와 협의하여, 처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
	- 신도시 건설로 3만 8,000가구, 탄현 4,000가구, 장항 12,500가구, 시내 오피스텔 및 영상밸리 테크노밸리의 자족시설이 들어오면 창릉지구 쓰레기 소각시설 확보(2기) 및 운영방안 필요 - 창릉천의 하수 고도 정화시설, 우수 오수 분리 시설 등 분뇨처리시설 설치 필요 - 창릉지구 건설로 인한 그린벨트 파괴에 따른 동등한 대체 녹지 확보방안 필요	○ 계획지구 조성으로 인한 GB 훼손 복구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
	○ 현재 정부의 신도시 교통난 해소방법으로 제시한 고양선은 6,000억 정도의 부담금이 드나 교통난을 해소하지 못하며, 통일로나 자유로의 출퇴근길 정체로 고양시가 경기 서북부의 교통오지로 전락할 처지임 - 자유로,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의 지하화는 시급히 집행되어야 하나 늘 계획일 뿐임	○ 신도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에 발생하는 교통문제는 광역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일산 주민 이*근 외 21명	○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무분별한 택지 지구 건설은 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지역슬럼화 및 빈집(신축쏠림)을 야기할 것임. 따라서 1기 신도시의 인프라와 환경을 이용한 리모델링 등 도시 재생화 사업이 더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됨	○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등을 통한 친환경적 재생화 사업방안은 별도 정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	-
	○ 서울 아파트의 회소성만 높여줄 것이며,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양극화 초래함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임	-
	○ 일산신도시 재개발이 먼저임. 3기는 1, 2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안됨	○ 창릉신도시는 일산 등 기존 신도시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일산주민 김*진 외 5명	○ 덕양구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98.3%로 이미 100%에 근접한 상태(2018년 기준)이며, 신규 주택 수요가 있는 곳이 아님	○ 경기도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전국 주택보급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2017년 말 기준 주택보급률 전국 : 103.3% 경기 : 99.5% 수도권 : 98.3%	반영
	○ 도면유흥로 인한 투기세력유입 이슈가 있는 지역으로 반드시 관련 사항에 문제가 없음을 상세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30사단 이전 확정, 고양선 연결 대책 마련으로 신도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확정하였음	-
	○ 지구내 대부분의 지역이 그린벨트 1,2급지(1급지가 90% 이상)로 미세먼지 발생 등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됨	○ 계획지구 내 포함된 GB 1등급 지역은 하천이고, 2등급지가 30% 수준이나 대부분이 군사시설용지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은 보존할 계획임	반영
	○ 해당 지역에는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이 위치, 문화유산의 가치하락 및 심각한 훼손이 우려됨. - 또한, 고양저유소 및 군부대가 위치	○ 서오릉 인근은 저층으로 배치하고 경관 및 문화유산의 가치하락 및 훼손 우려가 없도록 할 계획임	-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일산주민 김*진 외 5명	○ 3중규제지역인 고양시에 산업단지 계획 없이 자족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말은 신뢰성이 없으며, 창릉공공주택지구에는 가용면적대비 40%가 자족 용지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자족시설 유치성과가 거의 없어 문제가 심각한 인근 장항공공주택지구의 전체부지대비 자족시설 비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창릉 16%, 장항 15%)	○ 본 계획지구 내 자족용지는 「기업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주거와 자족기능이 복합적으로 조화된 공공주택 지구로 조성할 계획임	-
	○ 교통망 확충 선행 필요	○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을 통하여 주변 교통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고양주민 황*희	○ 용두동 현 주거지역 개발로 인한 소음, 일조권, 조망권, 도로확충(인도 및 소방도로) 요망	○ 향후 지구계획 수립시 용두동 주거지역 등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세부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겠음	-
	○ 개발지역과 기존지역간의 조화로운 개발에 힘써줄 것	○ 개발지역과 기존지역간의 조화로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
	○ GTX, 환승역을 향후 교통량, 인구증가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설 요망	○ 향후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교통량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할 계획임	-
고양주민 원*기	○ 앵봉산과 연결된 지역(용두동)과의 상호 연계 계획이 없으며, 순창천의 오염과 냄새로 인한 이익의 환수, 환경 관련 내용이 부실 -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살려주는 계획을 세워 주길 바람	○ 계획지구 내 창릉천, 순창천 등은 생태네트워크 계획을 수립 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도록 구상안을 수립하였음	반영
	○ 미래가치를 위한 신도시로 환승역(GTX-A)을 개설 하여 반영시켜 주길 바람(강남을 잡을 유일한 대안 중 하나)	○ GTX-A 노선 등은 별도로 수립 되는 계획임	-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고양주민 박*자	○ 창릉 5통, 6통, 7통 취락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및 주거환경 연계, 예방 및 조치할 수 있는 방안(개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인공호수 개발시 악취발생시 사전방지책이 없어 개선방안 제시바람	○ 세부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는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 호수 조성시 녹조발생 방지대책 등 악취 방지 대책을 검토하여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하겠음	-
고양주민 강*숙	○ 고양시 인구는 백만이 넘고, 일자리 부족, 엄청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됨	○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주택수요분석을 통하여 공급물량을 계획하였으며, 자족기능강화를 통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 예상됨	-
	○ 창릉역을 개발한다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며, 기존 1,2기 신도시부터 기업유치 교통정책 등 완료된 후 그때 다시 검토해야 할 것.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지어야 함	○ 자족용지에 첨단산업, 우량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며, 고양선 신설을 포함한 광역교통대책을 검토 중임	-
	○ 그린벨트 훼손은 막으면서 그린벨트의 해제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3기 신도시 정책을 재고해줄 것 요청	○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원·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창릉천 수계와 사업부지 외부 산림지역을 연결하는 녹지축 조성 등 친환경적인 공공주택 지구를 조성하겠음	-
아*산업 주식회사	○ 아주산업 상암사업소는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25-3번지에 위치한 레미콘 생산공장으로 2003년부터 16년간 서울북서부권역에 레미콘을 생산, 납품하는 회사이며, 당 사업소는 약 천여명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건설분야의 필수자재를 제공,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제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편입 예정지역으로 공고되어, 실제 신도시 조성 사업이 시행될 경우 공장 이주로 인한 경영 악화 우려가 큰 실정임 ○ 따라서 2019년 현재 공고된 바와 같이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당 사업장이 포함되어 시행된다면 다음 2가지 사항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절히 희망함 - 레미콘은 제품의 특성상 운반거리 제한이 있어 공급대상 지역이 한정되기 때문에 현재 사업소 위치와 유사한 지역의 서울 북서부권역에 공급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주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현 사업소 위치보다 북쪽으로 이전 시 사업소 운영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 레미콘 공장은 대다수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인식하여, 단독으로 레미콘 공장 조성 시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인하여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임으로 반드시 산업단지 또는 자족기능단지를 조성하여 단지 안에 레미콘 공장이 건립되게 해주시기 바람	○ 기업의 합리적인 이전대책을 목적으로 기업이전대책 수립·연구용역을 진행 중임	-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고양주민 홍*진	○ 업력 46년의 제조업체를 운영함에 따라 직원들의 집도 회사 근처에 모여 있어 회사이동에 많은 문제가 예상됨 ○ 개발을 안하거나 대체부지로 이동의 최소 피해 바람	○ 기업의 합리적인 이전대책을 목적으로 기업이전대책 수립·연구용역을 진행 중임	-
고양주민 안*준 외 1명	○ 생태계 및 문화유적파괴, 기존 1,2기 신도시 주민의 재산가치하락, 교통악화발생 등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	○ 주변 자연환경과의 생태네트워크를 고려한 토지이용구상(안)을 수립하였으며, 자족용지 계획,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통하여 기존 도시와의 상생 방안을 검토하겠음	반영
	○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양극화 초래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임	-
	○ 일산 신도시 재개발이 먼저, 신도시개발은 폭력적이고 전 근대적인 일	○ 창릉신도시는 일산 등 기존 신도시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고양주민 이*훈 외 14명	○ 계획지구 내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관통하여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로 인해 고속도로 본선에 바로 접한 곳은 수용해도 쓸모가 없을 것이므로 지구 계획에서 제외 바람 - 본선에 접해있는 면적들을 지원시설로 계획하고 있으나 고속도로는 지면에서 10m 이상 높이로 조성되어 본선에 접해서는 지원시설 신축 등 활용 불가능 - 고속도로 본선에 접한 장소가 지구계획에 수용 될시 생계유지 막연 -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수용치 않으면 그린벨트가 풀려 자연녹지로 되는 특혜가 주어져 안된다고 하나 이미 건물이 건폐율 60%로 들어서 있어 풀려도 건폐율 20%인 자연녹지 혜택은 어불성설임	○ 공사중인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계획지구를 통과함에 따라 주변에 공원·녹지, 지원시설용지 등 비주거시설을 배치토록 계획하였으며, 향후 지구계획수립 시 건축물 높이, 교통량에 따른 소음영향 및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할 계획임	반영
	○ 지난 5월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에 대한 답변 및 설명 없이 수용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공권력의 남용임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임	-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연합주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장*엽	- 그린벨트 해제는 법령 위배하는 것임 - 공공기관의 공적견해표현을 신뢰한 주민들의 신뢰이익을 해쳐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됨 -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내 집값 안정이라고 본건 사업 공익보다 '자연환경의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확보'가 더 큰 공익 -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함 - 그린벨트 해제로 투기 열풍을 확산시킬 가능성 있음 - 서울시처럼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고도 택지를 도심 내 유휴지를 이용하여 공급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해제는 위법·부당함	○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원·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창릉천 수계와 사업부지 외부 산림지역을 연결하는 녹지축 조성 등 친환경적인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음	-
	○ 문화재는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건설공사의 인가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해당 건설공사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에 관하여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본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 문화재 현황만 보고하고 있음 - 계획지구는 서오릉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개발보다 보존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함. 유네스코조차 사업 중단 권고 - 본건 초안의 경우 문화재 환경을 조사 분석한 내용을 포함한 초안 다시 제출해야 함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을 충분히 검토하여 경계를 설정하였음 ○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과 저촉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관계절차를 이행하고 지구계획 수립 시 주변지역 경관 및 일조장해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하겠음	-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연합주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장*엽	○본건 전략영향평가가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도면밀히 연구·조사하여야 함 - 식물상, 조류, 양서·파충류의 조사시기가 불충분하고 부정확하게 조사됨. 문헌조사에 치중함	○본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생태계 조사는 총3차(1차 : 6월, 2차 : 7월, 3차 : 11월)에 걸쳐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주변지역 최신 문헌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생태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	반영
	○본 계획지구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수질오염총량이 제한되어 관리되는 지역에 속하는데 본 사업으로 인하여 약 91,984인(38,327세대)이라는 대규모 인구가 추가로 폐수를 발생시킬 것으로 수질오염 총량을 초과할 것임 - 본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점도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위법·부당하게 작성됨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산정 가이드라인, 2015. 6, 환경부」에 따라 개발부하량 할당시기를 연기하였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시 개발부하량 할당을 협의할 계획임	반영
	○대기질의 경우 4계절에 따라 대기질 차이가 심해 계절별로 현장조사를 하여야 할 것임 - 계절별 조사가 시행될 수 없는 상황이면 이를 감안하여 결과치를 보정하여야 함 - 초안의 측정결과는 적합한 결과를 미리 산정해두고 짜 맞추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음	○본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에는 총 2차(1차 : 7~8월, 2차 : 11월)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추가조사를 시행할 계획임	반영
	○대기질 문제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살수차 운행, 세차시설, 운행속도 제한 및 적재함 덮개 설치, 수목식재 등이 제시되었으나 단지 효과가 미미한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대기질 오염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님 - 조사 및 분석, 저감방안 조차 모두 형식적으로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현 단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단계로 토공량, 교통량 등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향후 지구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정량적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소음·진동의 경우 계획지구 주변에 교통문제가 이미 심하게 발생하고, 새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문제를 반영하여야 함 - 소음·진동 분석의 경우 평균치로 규제기준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치로 비교하여야 함 - 본건 공공주택지구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문제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소음·진동 규제기준 수치를 하회하고 있음 -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운영시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영향을 예측한 결과 전 지점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본 사업으로 인한 소음·진동 문제는 상당할 것임	○소음·진동 측정결과 분석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하였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소음환경 기준 초과 여부를 검토·제시하였음 ○공사중인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계획지구를 통과함에 따라 주변에 공원녹지, 자원시설용지 등 비주거시설을 배치토록 계획하였으며, 향후 지구계획수립 시 건축물 높이, 교통량에 따른 소음영향 및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할 계획임	반영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연합주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장*엽	○ 일조장해의 경우 조사방법으로 문헌조사와 현장 조사가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어떤 데이터가 도출되었는지 개지하지 않아 실제 현장조사를 하였는지 의문이고, 서울기상관측망에서 측정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므로 계획지구의 일조시간을 정확하게 분석했다고 보기 어려움 -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일조장해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단정 -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참조자료 또한 신뢰성이 높지 않으며, 단지 주장 및 법령준수선언만 하였으므로 초안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 대체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신뢰성 없는 표본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일반적·추상적으로 결과 및 방안 등이 기술되어 형식적 짜 맞추기에 급급한 결과물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본 주민들은 초안을 신뢰할 수 없으며 받아들일 수 없음	○ 일조시간은 계획지구와 최근 접한 서울기상관측소의 측정 자료이며, 현 단계는 공공주택 지구 지정단계로 건축물 높이 계획 등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정량적 예측은 어려우며, 향후 지구계획 수립시 구체적으로 예측하겠음	반영
고양창릉지구 주민대책 위원회 일동 (노*철 외 37명)	○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들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진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과연 환경적 측면, 안정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에 있어 전문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움 -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하면 입법목적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짐 - 본 주민대책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에 따라 주민 30인 이상의 동의로 공청회 요청함	○ 주민의견서 제출 176명 중 162명의 공청회 요구가 있어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반영
	○ 평가항목·범위 등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간적 범위 정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제1편 제3장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및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를 설정하였음	반영
	○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 수질오염총량 관리 구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 -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41조를 적용하여야 함	○ 관련법에 따라 수질오염총량 협의 등을 이행할 계획임	반영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고양창릉지구 주민대책 위원회 일동 (노*철 외 37명)	○ 공원녹지율이 43%가 되어야 하나 38.7%로 4.3% 부족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보충(안) 요망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42.17%를 목표 생태면적률이라고 제시	○ 목표생태면적률은 초안 시 42.17%에서 45.39%로 상향토록 계획하였음	반영
	○ 호수공원으로 조성하면 갈수기에는 녹조발생으로 심각한 악취 발생, 공원 주변지역 피해저감대책 제시 요망	○ 세부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는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 호수 조성시 녹조발생 방지대책 등 악취 방지 대책을 검토하여 공원 녹지계획을 수립하겠음	-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지구 남동측 망월산 외에도 앵봉산과 서오릉 주변에 산림녹지 경관과 주거지 등의 인공경관 조망점을 선정하여 재검토 요망 - 주거지역의 조망과 서오릉의 지형경관조망이 검토된 스카이라인 기준을 선정하여 건축물 계획이 수립	○ 앵봉산 및 서오릉 주변지역에서 조망점을 선정하여 경관을 분석하였음 ○ 현 단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로 건축계획 등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 각 조망점별 경관시물 레이션을 실시하고, 스카이라인 변화 등에 따른 영향 및 저감 대책(건축물 계획)을 수립·제시하겠음	반영
	○ 수환경 보전 - 지표수에는 2015년부터 TOC(총유기탄소)를 적용하기로 되어 있으나 누락 - 지하수는 물 환경기준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먹는 물 수질기준 55항목에만 적합하면 되나 지하수의 생활용수제시는 잘못 기재됨 - 오수 발생량의 32,488m³/day 이어서 지표수 조사지점추가와 악취조사 지점수를 추가 또는 고양시와 협력하여 총량규제방안 마련 요망	○ 지표수 중 TOC는 2차조사시 추가조사를 실시하였음 ○ 지하수는 생활용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 향후 환경영향평가지 오수 및 악취 발생지점(하수처리장 등)에 대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조사 지점을 추가할 계획임	반영
	○ 법정보호종 현지조사 - 땃쥐, 원앙, 맹꽂이 외에도 철새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계절별로 계속 조사해서 공사 및 운영시에 최적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본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생태계 조사는 총3차(1차 : 6월, 2차 : 7월, 3차 : 11월)에 걸쳐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주변지역 최신 문헌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생태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	반영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고양창릉지구 주민대책 위원회 일동 (노*철 외 37명)	○ 대기질 현황농도 중 납과 벤젠은 연간기준이며 일산화탄소와 오존은 8시간 농도임 - 24시간 평균 환경기준이 없는데 만족한다고 허위기재한 문서 제시 - 공사장 내 차량 속도는 20km/h를 10km/h로 감소하여야 비산먼지 발생 저감	○ 보고서상 24시간 평균은 오기입 된 것으로, 측정결과 CO 0.2~0.7ppm, O₃ 0.014~0.038ppm으로 8시간 평균 환경기준을 만족하며, Pb 0.0032~0.0163μg/m³, 벤젠 1.45~2.63μg/m³로 연평균 환경 기준을 만족함 ○ 공사장 내 차량 속도는 64km/hr (40mile) 대비 24km/hr(15mile)로 제한시 80%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영
	○ 토양의 경우 환경현황이 모든 항목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만족'으로 제시했으나 군부대시설이 포함되어 허위 기재됨 - 오염예상지역을 토양항목에 포함시켜 운영시 오염저감계획 수정 - 지정폐기물인 폐유에 의한 토양오염, 지표수, 지하수 등의 오염우려가 예상	○ 지구지정 이후 군부대와 협의를 걸쳐 군부대 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반영
	○ 온실가스 - 계획지구의 토지지목의 GHG CO₂ 저장량이 11.8만톤이어서 공원과 녹지조성 관련 재계획 수립시 탄소흡착과 고정효과를 높이는 수종을 선정 요망 - 친환경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공사장비의 CO₂ 배출량을 연간 1,000톤으로 감소 바람	○ 공원녹지를 최대한 확보하였고, 탄소흡착 및 고정효과를 높이는 수종도입방안, 친환경 건축계획 등을 검토하여 향후 환경영향평가 시 제시하겠음	-
	○ 소음현황조사에서 주간 54.5dB(A)로 소음환경기준 초과 - 야간에도 46.4dB(A)로 소음환경기준 초과하였는데 저감방안 제시 누락 - 공사시나 운영시에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저소음장비 관리지침과 작업시간 조절 등을 요함 - 호수공원 조성시에도 암반 등이 있으면 발파로 소음, 진동의 저감계획을 제시 요망	○ 소음현황조사 주간 54.5dB(A), 야간 46.4dB(A)는 도로변지역으로 소음환경기준(주간 65dB(A), 야간 55dB(A))을 하회함 ○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저소음 장비, 작업시간 조절 등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 향후 지반조사결과 암반 등이 있을 경우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제시하겠음	반영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고양창릉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일동 (노*철 외 37명)	○ 계획시행으로 생활환경의 오염은 미미하게 예상,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악취·공해와 수질오염 총량 규제에 따른 환경기준달성이 제한됨 - 저감대책수립으로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역환경기준유지 제한 - 계획지구의 1, 2등급지가 88.7%를 차지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는 67.9%로 서로 다르기에 정확한 자료 제시 요망 - 녹지율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자료에는 38.7%이나 평가서(초안)에는 39%로 서로 다르게 제시되어 있음	○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산정 가이드라인, 2015. 6, 환경부」에 따라 수질오염총량 할당연기를 고양시와 협의완료 하였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고양시에 수질오염총량을 할당 받겠음 - 계획지구는 GB : 97.7%, GB외 지역 2.3%이며 1, 2등급지는 전체 면적 대비 35.3%임 - 녹지율은 입지현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확보하였음	반영
	○ 환경피해 유발시설물 현황 누락 - 도로현황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 산업 및 농공단지 - 의료시설 현황, 주거시설 현황	○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환경 피해 유발시설물은 기 제시하였으며, 주변 정온시설(주거지역)은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반영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항목 중 식물상은 주변 500m 이내이나 100m로 제시 - 동물상은 300m 이내로 부실하게 작성하여 제시(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 위반사안) - 서오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지역으로 건축계획시 경관, 일조장애 등 검토사항 제시 요망 - 서오름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망점을 설정하여 주변 조망점에서 스카이라인 고려한 건축물 계획 수립하여야 함	○ 항목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 「환경영향평가서등 적성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영향범위 및 평가항목별 영향예상 범위를 고려하여 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음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을 충분히 검토하여 경계를 설정하였으며, 서오름은 경관시물레이션을 통해 토지 이용에 반영하여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음	반영
	○ 법정보호종 - 법정보호종 조사에 탐문조사 포함 요망, 철새와 텃새로 구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황조롱이, 큰기러기, 맹꽁이, 제비, 딱따구리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 - 이들의 집단 번식지 및 휴식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안 마련 요망	○ 본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며, 향후 번식지 등이 추가 발견시에는 관련 전문가의 판단하에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임	반영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고양창릉지구 주민대책 위원회 일동 (노*철 외 37명)	- 지표수질에 COD를 제시하였으나 TOC가 누락되었고 지하수질에 NO₂-N 제시로 먹는 물 수질 기준 미적용 - 지하수질은 먹는 물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 - 먹는 물 기준 항목인 NO₃-N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지하수 기준 항목의 NO₂-NO 적용	금회 2차조사시 지표수질 조사항목에 TOC, 지하수 조사 항목에 NO₃-N을 추가 조사하였음	반영
	- 지표수질에 COD 삭제하고 TOC 측정 요망 - 지하수질은 NO₂-N로 먹는물 기준 항목이 아니며 NO₃-N로 측정하여야 함 - 지하수를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음		
	발왕천 누락되었음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발왕천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반영
	- 계획지구 대기질 - 계획지구 주변지역 8개 지점에서 24시간 평균 환경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명시하였으나 실제 납과 벤젠은 연간 평균환경 기준값이고 오존과 일산화탄소는 8시간 평균 기준값이고 오존과 일산화탄소는 8시간 평균 기준값으로 차이가 발생함	보고서상 24시간 평균은 오기입된 것으로, 측정결과 CO 0.2~0.7ppm, O₃ 0.014~0.038ppm으로 8시간 평균 환경기준을 만족하며, Pb 0.0032~0.0163 $\mu\text{g}/\text{m}^3$, 벤젠 1.45~2.63 $\mu\text{g}/\text{m}^3$로 연평균 환경기준을 만족함	반영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현황 - 군부대지역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LH가 고양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 -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따른 토양오염도 현지조사가 필요 - 현지조사 조사지점으로 추가 선정하여 공사시와 운영시에 지속적으로 만족여부 확인하여야 함	지구지정 이후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군부대 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반영
	- 폐기물 처리 검토 - 생활폐기물 1일 84.2톤과 음폐물 32.4톤의 처리 계획이 누락됨 - 이에 따른 저감방안 수립 및 분리수거하여 재활용 요망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는 고양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반영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고양창릉지구 주민대책 위원회 일동 (노*철 외 37명)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운영시 생활하수 1일 321,480㎥가 발생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여 처리한다고 명시 - 토지이용구상과 계획지구 위치도에 표기하고 악취, 지표수, 토양, 지하수의 조사지점 추가 요망 - 생활폐기물은 고양시 폐기물처리 계획에 따라 적정처리 계획 제시 요망	○ 오수발생량(321,480㎥)은 고양시와 협의 하여 하수처리 시설계획을 지구계획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며, 또한 추후 하수처리시설 위치에 따라 주변 환경질조사를 실시 할 계획임 ○ 생활폐기물 또한 세부계획 수립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 할 계획임	반영
	○ 위 내용들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설정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박사학위 취득자의 분석을 통하여 작성되었으며, 전문가의 시각에서 위와 같은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음	○ 위 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현 단계에서 검토가 어려운 부분을 향후 지구계획 수립시 세부적으로 검토·제시하여 환경적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임	-
	○ 법적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막무가내식으로 진행되는 설명회가 아닌 전문가와 함께 주민들이 질의 응답을 나눌 수 있는 공청회는 본 주민대책위원회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에 그 근거가 있음	○ 기 개최한 공청회는 사업시행자측 및 평가대행자 측 전문가 4인, 주민대책위원회 6인의 패널을 선정하여 정상 개최되었음	-
	○ 우리 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아니할 시 고양창릉지구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할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심사숙고하여 받아들이길 바람	○ 본 주민의견은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시 반영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계획이 수립되는 환경영향평가시 세부적으로 검토·제시 하겠음	-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고양주민 김*규	- 고양시는 일산신도시에 약30만명의 계획도시로 구성된 이후 풍동,중산2,식사,덕이,삼송,원흥지구 등의 난개발로 인해 일자리, 도로, 전철, 생활오 폐수 등 공간 및 교통 한계를 초과하여 삶의 질이 극도로 저하되었고, 이는 같은 1기 신도시인 분당의 절반의 집값으로 반영 - 더 이상의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도로, 전철을 원함	본 계획과 연계되는 일자리(자족용지), 도로, 전철, 오폐수 처리계획 등은 향후 지구계획 수립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적으로 검토될 예정임	반영
고양주민 민*홍	현재 고양시 폐기물 처리 용량이 부족하여 대용량 소각시설 설치 필요	소각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은 관계기관인 고양시와 협의하여 검토할 계획임	-
	공사기간 중 미세먼지발생에 대한 대책이 단순 살수, 세륜·세차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 여부 확인 필요함	향후 토공량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지구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계획임	-
고양주민 박*임	서울 집값 잡겠다고 고양시 세계문화유산유적지 서오릉 주변을 회색벽으로 둘러싸여 답답한 기운으로 환경파괴까지 해가며, 아파트 짓는 정책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무분별한 개발이익을 내기 위해 서민을 죽이는 정책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을 충분히 검토하여 경계를 설정하였음 -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과 저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계절차를 이행하고 지구계획 수립 시 주변지역 경관 및 일조장해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음	-
	그린벨트 해제하여서 아파트 외 용적률 최하, 2개층 이하 단독주택 단지로 개발 요청	서오릉 인근은 특별계획구역으로 하여 저층으로 배치토록 할 계획임	-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고양주민 김*호	○ 동네에 충분한 녹지가 확보되었음에도 그곳에 공원조성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생태계의 단절, 훼손 등을 방지하 기 위하여 계획지구 내부 봉 재산, 망월산, 창릉천 등과 주변 자연환경과의 생태네트워 크를 고려한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고양주민 안*호 외 9명	○ 신도시 개발 후 불보듯 뻔한게 교통문제인데 GTX 현계획당 “창릉역”이 유치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음 - 교통지옥을 피하려면 창릉역은 신설되어야 함	○ 전체 노선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고, 표정속도 등을 고려해 야 하는 바 창릉역 신설은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됨	-
고양창릉 (서)통합주민 대책위원회, 고양주민 호*찬	○ 우수계획에 대한 수치화된 정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요청 - 창릉지구의 대부분은 저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과 답임. 전과 답은 비가 올 때,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하는 효과가 있으며, 답의 경우 논둑의 높이까지 그대로 저장이 가능하나, 전과 답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창릉지구에서도 국지성 소나기가 오면 물에 잠기는 곳이 발생하고 있음 - 이 지역에 건물이 들어서면 대부분의 땅은 아스 팔트와 보도블럭으로 덮일 것임. 우수가 땅속으로 스며들거나 저장되지 못하고 즉시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모일 것임 - 대안으로 LID(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 개발기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 기법을 적용 하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가?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가 없음. 제시 요구(“향후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우수배치 계획에 따른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적절한 위치 및 형식을 결정하겠음”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이러한 교과서적인 내용은 배제하라는 작성지침을 위반한 사항)	○ 향후 단지계획 등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지구계획 수립시 재해영향, 우수계획, 비점오염저감 등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겠음	반영
	○ 약취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했다고 명기 되어 있으나 조사방법 및 데이터 신뢰도 의의 제기 - 환경기초시설 주변(동산동, 삼송동) : 설문조사 18명 - 돈사(원흥동, 도내동) : 설문조사 22명 - 약취는 약취원에서부터 가까운 곳에서 심하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할 것임. 설문조사는 대표성을 가지는 조사이지만 약취의 특성을 고려해서 설문 조사를 실시해야 함 - 약취원에서 사방으로 가까운 곳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함 - 설문조사를 실시한 위치 불명확, 대상자의 정확한 위치공개 바람 - 설문조사한 대상자의 숫자 문제. 아파트 1개 단지는 1000세대가 넘는데 18, 22명은 지역을 대표할 정도의 표본수라 볼 수 없음 - 조사대상 시설에 근접한 단지 내지 동네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충분한 수의 주민에게 설문조사 요청	○ 약취에 대한 설문조사는 환 경기초시설 주변과 돈사 주변 주거지역을 구분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돈사로 인한 약취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영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고양창릉 (서)통합주민 대책위원회, 고양주민 호*찬	○ 악취 발생빈도와 정도 및 영향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횟수와 기상상태, 풍향, 풍속, 기온, 대기상태 및 계절 등의 변수가 반영된 영향 검토 요청 - 악취는 대기의 이동에 따라 전달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측정일의 기상상태, 측정시간, 풍향, 풍속, 기온, 대기상태와 계절 등에 따라 악취 수치 차이 발생 - 이러한 변수 고려 없이 1회 측정으로 기준치 만족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 악취 발생은 기정사실인 바 악취의 최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가질만큼 충분한 데이터 확보 필요	○ 악취 현황조사는 총 2차(1차 : 7월, 2차 : 11월)에 걸쳐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추가 조사를 수행할 계획임	반영
	○ (표 10.2.1.5-2 조사지점 위치), (그림 10.2.1.5-4 소음측정결과), (표 10.2.1.5-5 진동측정결과)를 보면 일치하지 않음. 철도소음, 진동데이터 누락됨 - 누락된 철도차량에 의한 소음, 진동 측정데이터 보고서에 반영 바람 - 소음과 진동 측정시 조건을 명기하고, 측정조건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생조사팀에서 촬영한 사진을 참고하여 사진 수록 바람	○ 철도 소음진동 측정결과 기준치 이내로 데이터를 부록편에 제시하였으나, 본문에 재수록하였으며, 측정사진을 부록편에 제시하였음	반영
	○ 각 공정별 장비투입계획과 소음도를 예측하고 대책제시 요청 - (표 10.2.1.5-10 장비투입계획(소음도))에서 부지 정지공사가 소음이 가장 큰 것으로 가정했는데 공사 중에 여러 가지 공사 공정이 있을 것이고, 동일 공정에서도 장비투입이 수시로 증감 - 최악의 조건이 아니라 굴삭기 1대, 불도저 1대, 덤프트럭 2대 예측한 것은 가장 작은 소음 발생 조건으로 예상됨	○ 본문에 제시된 장비투입대수는 소음 영향권 산정을 위한 것으로 한 지점에서 장비가 동시에 가동될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하며, 향후 토공량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지구계획 수립시 세부적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반영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고양창릉 (서)통합주민 대책위원회, 고양주민 호*찬	○ 철도소음진동 데이터를 수록하고, 측정데이터에 의한 예측을 통한 영향 여부를 보고서에 수록 요청 - 철도소음진동 계측데이터가 누락, 예측 내지는 영향검토를 4줄로 서술하였으나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구체적인 검토 내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교과서적인 서술 하고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사후 처리의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기본 목적인데 검토도 없고, 대책을 추후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서술하는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임	○ 철도소음진동 데이터를 수록 하였으며, 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구상안을 기본으로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대안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본 소음·진동편에서는 영향권 설정 및 범위를 다루고, 도입할 수 있는 주요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	반영
	○ 항공기 소음을 계측하고, 데이터를 근거로 예측한 항공기에 의한 노이즈맵을 제시바람. 항공기는 예정된 경로와 비상시 경로가 있는데 이를 반영 해서 검토 요청	○ 제시된 수색비행장은 비상시 (항공기 대피 등)에만 활용중인 시설로 관련문서를 첨부하였음	반영
	○ GTX-A노선 공사 중, 운영 중 진동 및 소음 영향 검토가 누락되어 있는 바 추가 검토 요청 - 부지 동서방향으로 가로질러서 GTX-A 노선이 계획되어 타 공구에서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창릉신도시 부지에서 보상단계 진행 중에 있음	○ 본 계획지구의 GTX-A노선 통과구간의 소음·진동 영향은 환경부와 기협의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소음·진동 검토내용을 인용·제시 하였으며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예측되었음	반영
	○ 고양선의 공사 중, 운영 중 진동 및 소음영향 추가 검토 요청 - 창릉신도시에 고양선 신설되는 것으로 발표 - 고양선 신설에 따른 공사 중, 운영 중 진동 및 소음 영향 검토가 누락	○ 계획 예정인 고양선은 현재 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 본 계획지구에 대한 영향검토를 수행하겠음	-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고양창릉 (서)통합주민 대책위원회, 고양주민 호*찬	○ 지하수 변경에 따른 지반침하내지 싱크홀 발생과 같은 지반불안정화에 대한 검토 요청 - GTX-A 노선은 지하 50m로 고양선은 지하 20~30m(추정)로 설계, 공사, 운영될 것임 - 지하철 터널에는 지하수가 유입, 상시 배수를 하도록 되어 있음. 지하수 20~30m에서 물을 퍼내고, 지하 50m에서 물을 퍼내면 근처의 지하수위는 -50m 이하가 될 것임	○ 현재까지 본 계획지구 내 대규모 지하구조물계획은 없으나,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 지하수 변경을 유발하는 시설이 도입될 경우 지반불안정화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겠음	-
	○ 지하수위 변경에 따른 은지연못에 미치는 영향 검토 요청 - 도내동 847-3에는 향토유적 제36호인 은지연못이 있음. 1456년에 만들어져서 560여년 동안 샘물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연못임. GTX-A와 고양선과 같은 지하구조물에서 배수에 의한 영향 우려됨	○ 현재까지 본 계획지구 내 대규모 지하구조물계획은 없으나,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 지하수 변경을 유발하는 시설이 도입될 경우 지반불안정화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겠음	-
	○ 본 보고서에는 개론적 내용과 본 대상지구와 관계 없는 것은 빼고, 우리 대상지에만 한정된 구체적인 것, 정밀한 검토와 대책제시 요청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205호, 환경부]”에 의하면 “제20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분량)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본문은 가급적 100면 이내로 하고 부록을 포함하여 200면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초안보고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보고서임	○ 관련규정에 의거 성실히 작성하였음	-
	○ 교통평가에 의한 환경영향이 큰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 바, 현재까지 발표된 교통대책을 기초로 교통량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와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요청 - 창릉신도시는 주택 38,000호, 자족용지에 스타트업, 벤처 특구로 조성해서 9만 여개의 일자리, 서울숲의 2배 규모 면적의 도시숲 조성이 계획되어 있음 - 서울숲 연간 이용자 수는 700만명, 면적대비 창릉신도시 공원 예상이용자수는 연간 1,400만명, 일일 예상 이용자수는 약 38,000명임	○ 지구계획 수립 이전까지 광역 교통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를 통하여 환경영향에 대하여 검토하겠음	-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고양창릉 (서)통합주민 대책위원회, 고양주민 호*찬	- 하루 이동인구는 38,000명(단, 1인/1주택) + 9,000명(자족시설 이용자) + 38,000명(공원 이용자) = 166,000명 임. 이동인구에 대한 대중 교통대책이 적절한지 평가 및 대책 필요 - 현재, (1)지하철 신설은 서부선의 연장구간(고양선)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고양선의 본선인 서부선은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행이 없는 상태. 지금부터 설계를 진행하더라도 10년은 족히 필요하고, 연장구간인 고양선은 본선 이후 진행된다고 한다면 최소 20년은 지나야 운행할 수 있을 것임 - (2)광역도로 신설은 광역도로의 끝은 자유로 내지 제2자유로와 연결됨. 현재 자유로와 제2자유로는 수용능력을 초과한 상태이며, 창릉신도시 시민이 가세하면 교통체증은 가중될 것임. - (3)BRT 및 간선도로입체화는 BRT는 창릉지구에서 간선도로(수색로, 통일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 수행. 그러나 현재상태에서도 수색로와 통일로는 대표적인 교통체증 도로임 - 참고로 현재도 창릉신도시 주변의 간선도로(자유로, 제2자유로, 외곽순환도로, 88도로, 서오릉로, 백신도로, 통일로 등)는 이미 포화상태임		
	○ 이와 관련한 검토 요청사항으로 GTX-A 노선의 창릉역 신축한다고 할 경우, 교통량 변화 또한 검토 요청	○ GTX-A는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지구내 환승역 반영은 현실적으로 곤란함	-
고양시 주민 김*	○ 창릉천 생태계 위해요소 발생 없이 친환경 개발 이어야 하며, 계획지 인접한 화전동 일부가 하수관로 사업이(현재는 무단방류 상태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오폐수 분리, 종말처리시설 이용케)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 시설은 관계기관인 고양시와 협의하여 처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반영
EIASS 김*준 외 37명,	○ 창릉신도시가 아닌 덕양신도시로 이름 바꿔주길 바람	○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신도시 이름을 결정하겠음	-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원흥도래울 마을연합회, -용두동, 동산동 통장 창릉동	○ GTX 덕양역을 통해 덕양신도시를 3기 신도시 대표로 해주길 바람 - GTX 역사 없이는 자족시설과 교통문제 해소 불가능 -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자유로 지하화 계획 등 개선의 노력이 보여지고 있으나 교통문제 해결하기엔 부족	○ GTX-A는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지구내 환승역 반영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 고양선 도래울역 설치 바람 - 3기 신도시부지와 맞닿아 있는 기존주거지 도래울 마을은 오랜기간 소음, 분진, 안전의 위험을 감내해 왔음 - 고양선은 서울 새절역과 항동신도시 창릉 신도시, 원흥지구, 화전지구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방안 이므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역이 정해져야함 - 원흥지구는 만세대 이상의 세대가 거주, 이케아를 찾는 주민 증가로 원흥지구는 앞으로 지역주민이 늘어날 이유 명확하므로 원흥지구에 설치 요청 - 이로 인해 서울과 창릉신도시, 타지역의 균등한 발전 촉진	○ 향후 고양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
	○ 호수공원과 숲공원을 차 없이 왕래할 수 있도록 시설물이나 동선 확보. 또한, 교통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대형주차장을 가진 환승터미널 구축 바람 - 인천공항 마지막 쇼핑물 또는 관광지화 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 요구 - 수영장, 숙박장, 캠핑장, 영상분수쇼, 플리마켓 등	○ 향후 지구계획 수립시 검토 하겠음	-
	○ 창릉천, 호수공원, 숲공원의 특화와 복합문화 센터의 위치를 생활중심권에 두되, 도래울 4만 인구도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교각신설-1단지, 4단지, 이케아 사거리)	○ 향후 지구계획 수립시 검토 하겠음	-
	○ 돈사 약취부분은 이격설계로는 적합하지 않으니 지구 내로 편입하거나 합당한 보상 요구 - 해당토지에 고양 중소가구업계 홍보관 설치 요구	○ 해당지역 주변으로 확장(편입)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 자유로에서 권율대로를 통한 진입로 추가 필요 - 방화대교를 통한 올림픽대로의 접속도로도 필요	○ 지구계획 수립 이전까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으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음	-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원흥도래울 마을연합회, -용두동, 동산동 통장 창릉동	○ 도래울마을의 수변공원과 1단지 옆 CH송전탑을 금번 진행시 지하로 매립 바람 - 자기장 소음과 영향이 아이들의 삶에 악영향	○ 향후 지구계획 수립시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검토를 거쳐 처리방안을 제시하겠음	-
	○ 덕양로의 교통증가가 예상되며, 도래울마을의 이케아와 연계한 상업시설을 5, 6단지 아래로 이동설계가 가능한지 검토 - 이곳에 고양선 도래울역사와 같이 설계 바람	○ 향후 지구계획 수립시 검토 하겠으며, 고양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
	○ 신혼부부 주택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에 적극 찬성 - 하나 기본원칙인 적합한 교통망 구축 필수	○ 지구계획 수립 이전까지 광역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으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음	-
	○ 환경영향평가에서 기준 잡은 500미터 내의 기존 입주민들의 시민모니터링 단체를 공식 협의체 (LH와의 공식 소통창구)로 인정해 주길 바람 - 현재 원흥도래울마을연합회라는 마을 대표기구 존재 -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요구	○ 기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실시 하였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시 에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도내동 호반 5단지 앞 봉재산 훼손이 없도록 공원 면적을 현재보다 두 배로 확대 바람	○ 봉재산 주변으로 공원 및 녹지를 조성토록 계획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였음	-
	○ 창릉천 재정비, 공원화, 차량 통행 제한 요구 - 북한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주요 하천인데 타지역과 다르게 개발되지 못하고, 활용도 크지 않음	○ 창릉천 수변부 완충녹지 조성 규모를 확대토록 계획지구 내 남북간 연계성을 강화토록 계획하였음	-
	○ 도래울 마을과 신도시 접근성 강화 - 의장대공원과 신도시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경관 육교 설치로 야간관광자원으로 활용 바람 - 덕양대로를 횡단하는 육교 설치바람(도래울 6, 7단지와 남쪽의 신도시 연결)	○ 향후 지구계획 수립시 인접 지역과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 조망권확보 - 기존 도래울 5, 6, 7단지의 일조권, 사생활 확보 위해 신도시 설계시 이격거리 및 층고 고려바람	○ 향후 지구계획 수립시 건축물 계획에 따른 일조권영향을 검토하겠음	-
	○ 백로서식지의 공원과 상업시설의 재배분을 통하여 연결시켜 향후 주거지의 민원 최소화 및 도래울역 설치 위치 확정 요청	○ 향후 지구계획 수립시 토지 이용계획에 반영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도래울역 위치는 고양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음	-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원흥도래울 마을연합회, -용두동, 동산동 통장 창릉동	○ 백석동~서울문산고속도로 설치는 효용없는 비용 낭비로 다른 재원으로 사용 요청	○ 지구계획 수립 이전까지 광역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으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음	-
	○ 덕양로의 확장으로 정체 최소화 바람	○ 지구계획 수립 이전까지 광역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으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음	-
	○ 덕양로 상 도로소음방지시설, 자전거 및 보행 보조 장치의 육교 설치 바람	○ 향후 지구계획 수립시 소음 저감시설 및 보행연결 체계를 검토하겠음	-
	○ 이케아 건너편 돼지돈사지역을 지구내로 편입하여 악취문제 해결 요망	○ 해당지역 주변으로 확장(편입)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 자족시설 근무자 전용 임대지구와 GTX 연계성 확보	○ 향후 지구계획 수립시 검토하겠음	-
	○ 초안에 용두동 발왕천, 안골천 하수처리계획이 없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계획 요구	○ 고양시 하수처리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임	반영
	○ 덕양구 용두동 242번지에 매년 철새인 제비집이 존재. 철새도래지 보호 요구	○ 지구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생태계 조사 및 영향여부를 검토하겠음	-
	○ 도래울(원흥)이케아 유통점기준 남쪽으로 300~500m 지점 백로 서식지 보존대책 제시 바람	○ 공사시 번식지역을 중심으로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으며, 백로과 조류의 번식 시기는 연도, 지역, 개체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백로의 번식단계에 따른 백로 번식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에도 해당 번식지가 유지될 경우, 원형보전 등 별도의 저감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반영
	○ 발왕천, 순창천, 안골천, 홍릉천 지역전체가 맹꽁이 서식지임으로 확인조사 및 필요대책 제시 바람	○ 현재까지 창릉천 지역에서 맹꽁이 서식지가 확인되었으며, 향후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전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서식지보전, 대체서식지 조성, 포획·이주 등의 보전대책을 수립하겠음	반영

나. 주민설명회

구 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주민 1	○ 창릉천, 순창천은 중요한 생태축임	○ 계획지구 내 창릉천, 순창천 등은 생태네트워크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도록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하였음	-
주민 2	○ 저영향개발이 '검토'로 되어있는 등 홍수가 우려됨	○ 본 계획지구는 자연생태 물순환 체계 유지를 위한 저영향개발 기법(LID)을 적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기법, 수량 등은 지구 계획시 수립하겠음	-
주민 3	○ 인근 지역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교통관련 계획이 있는지?	○ 지구계획 수립 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수립 등을 통하여, 교통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주민 4	○ 경기도 조례에 따라 500m까지 문화재 구역인데 창릉신도시 부지에서 빼 줄 용의는 없는지?	○ 서오릉 인근은 저층 및 단독주택 위주로 배치할 계획임	-
주민 5	○ 인근 주거지역 영향에 대한 대책은?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야별 영향예측을 수행하고 방음벽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 -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지구계획 수립시(환경영향평가 시) 설치 위치, 제원 등 구체적인 저감 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반영
주민 6	○ 이케아 옆 둔사 악취대책은?	○ 둔사로 인한 악취영향이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지구내 공원·녹지 등으로 구성된 완충공간을 계획 하였음	-
주민 7	○ 도래울 마을 수변공원 창릉천 호수공원 연계성 계획은?	○ 계획지구 내 창릉천을 비롯한 수공간 및 산림녹지공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계획을 수립 하였음	-
주민 8	○ GTX A 노선 창릉역 설치 계획은 없는지?	○ GTX-A는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지구내 환승역 반영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주민 1	○ 고양선 도래울역 설치는 불가능한지?	○ 향후 고양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

다. 주민공청회

구 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패널	1. 원*석 외 1명	○창릉지구는 GB 3, 4등급이 62%를 차지하며,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이므로 향후 이에 합당한 보상 요구	○현재 '20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절차 이행중으로, 구체적인 이전대책 등 보상계획은 지구지정 이후에 진행될 예정임	-
		○현재 계획은 기존 주택지에 대한 조망권 미보장 등 배려가 없어 대안 중 2안으로 선정하길 바람. 개발시 기존 주택지와 교감이 될 수 있도록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편의시설 조성 바람	○계획지구내 공동주택 등 건축물간의 조망권, 일조장해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세부 건축계획 수립시 건축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이로 인한 민원의 발생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패널	2. 장*엽	○개발구역 해제 반대	-	-
		○군부대(30사단)로 인한 토양, 수질오염으로 인한 최소화하는 방안 요구 (화약고 포함)	○군부대 내부의 토양 및 수질오염 조사부분은 지구지정 이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내부에 대한 토양조사 등을 통하여 오염지역 확인후 대책을 수립·제시하겠음	-
		○보고서 신뢰할 수 없음. 공청회 재개최 요구	○향후 환경영향평가지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를 추가 실시할 계획임	-
	3. 장*일	○인구밀도 조사결과 한세대 당 2.4인의 기준 공금 - 자족용지, 주변지역 유동인구 반영여부	○세대당 인구는 현재 고양시의 지표가 세대 2.5인으로 산정되어 그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향후 주민 변동율은 지구계획 때 상세하게 계획에 반영할 것임	-
		○GTX 창릉역, 환승주차장 설치 요구	○GTX는 LH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주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음	-
	4. 원*섭	○일산 신도시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필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임	-

구 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스마트 도시로 얻는 개발이익 환경문 제에 사용 요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 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이를 재원으로 하여 관련부처인 환경부 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을 추진 토록 되어있음	-
패널	5. 이*석	○장마철 도내동, 용두동, 화전동 등 일 부 저지대 침수, 대책 필요	○향후 지구계획 수립시 사전재 해영향검토를 거쳐 신도시 조 성으로 저지대 지역의 침수 피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이 용계획 및 우수배제계획을 수 립하겠음	반영
		○고양시는 사업체가 많고 종사자 수도 많 음. 책자 내 고양시 사업체가 없다고 진 술되어 있어 실태조사 필요	○표현한 산업은 산업입지 내 공장(산업단지)을 의미하며, 기존 사업체는 별도 기업이 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어 곧 조사가 들어갈 예정임. 중소기업 및 기업에 대한 이전대 책 수립 예정	-
	6. 이*성	○하천수 조사에서 TOC 누락, 지하수의 경 우 아질산성질소가 아닌 질산성질소 항 목이 들어가야 함	○TOC와 질산성질소는 의견을 반영하여 11월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음	반영
		○환경기초시설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명칭 바뀜. 대지면 적에서 개발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되어있으나 평가서 내 언급 없음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 초시설은 관계기관인 고양 시와 협의하여 처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반영
		○대기환경기준 중 CO 및 오존은 24시 간 기준이 아닌 1시간 기준이며, 납, 벤젠은 연간기준임	○대기환경질 측정은 대기오염공 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하였 으며, 대기환경기준 관련된 사항은 수정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7. 주민1	○신도시 개발로 인한 집값 하락 우려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 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임	-
	8. 주민2	○하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 획이 없으며, 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 우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 초시설은 관계기관인 고양 시와 협의하여 처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반영

구 분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9. 주민3	○교통시설 확충 및 대기질 개선책 필요	○향후 지구계획 수립시 교통량 증가 등에 따른 대기질 현황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하겠음	-
주민	10. 주민4	○서오릉 세계문화유산 보호구역 보호 필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을 충분히 검토하여 경계를 설정하였으며, 경관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 관련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겠음	-
	11. 주민5	○인왕천 백두루미 200여 마리에 대한 평가 필요	○본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계획지구 크기 고려할 때 조사기간 짧음	○동식물상 조사는 생물 종조성이 왕성한 6월 및 7월에 2차에 걸쳐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가을철(11월) 조사를 추가 시행하였음.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생태계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과정에서 법정보호종 발견, 주요종 도래 등에 따른 추가 저감대책 마련이 필요할 경우 충분한 대책이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구체적인 설명 필요	○본 절차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단계로, 후속 절차인 지구계획 수립시 세부계획이 수립됨.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시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겠음	-
	12. 주민6	○보상과정에 있어 GB로 50년 이상 묶여 토지가 저평가 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에 이를 고려하여 GB수준이 아닌 지역의 생산관리 수준 등으로 정당한 보상을 바람	○현재 '20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절차 이행중으로, 구체적인 이전대책 등 보상계획은 지구지정 이후에 진행될 예정임	-